<게임 스토리 배경>

관리인 C는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크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상처를 받아 왔다. 관리인 C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어렸을 때의 학대가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관리인은 자신이 자신의 부모라는 최악의 패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게임을 시작했다고 여긴다. 애초부터 공정하지 못한 게임. 자신이 질 수 밖에 없었던 게임. 자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공정하지 못한 패때문에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관리인 C는 과거 자신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잊고(아버지와 비슷한, 자신에게 상처준 사람들과 비슷한) 플레이어(그냥 인간 자체를 그렇게 보는 것임)에게 불공정한 게임을 맛보게하고자함.

즉 인생=게임, 플레이어를 이긴다=플레이어의 목숨을 가져간다.

## <게임 진행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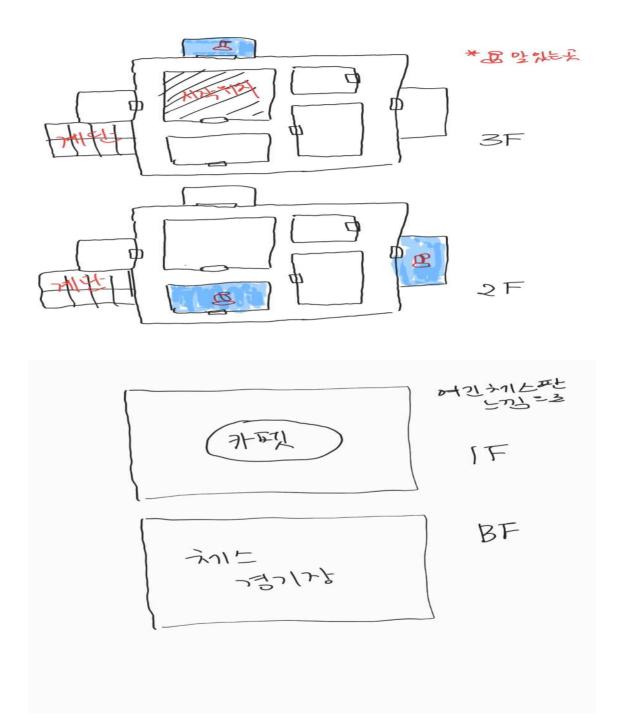
방 안에서 눈을 뜬다. 방은 일반적인 아늑한 분위기와 함께 방 중앙에 테이블 한 개, 의자 두 개, 커피잔 두 개, 체스판 하나가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방 안을 스윽 돌아보는 제스쳐를 하고 티비가 치지직거리며 켜진다. 티비에는 스테이지 1에 나왔던 관리인 C가 나온다. 관리인 C의 영상은 다음과 같다 (관리인 C, 플레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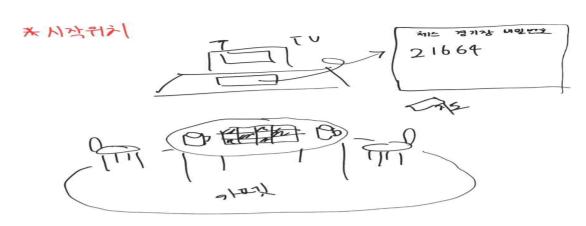
- "용케 여기까지 왔군."
- "나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 "왜 그러냐니, 다 이야기해줬잖아. 아직도 모르겠어?"
- "이해해. 억울하겠지, 나도 니 맘 다 알아."
- " "
- "인생이란 한낱 게임에 불과하지"
- "나는 그 게임에서 최악의 패를 가지고 시작했어."
- "시작부터 패가 다른 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 아니겠어?"
- "내 게임은 질 수 밖에 없는 게임이었어."
- "뭐...?"
- "I'm desperate for a checkmate in my life."
- "잘해봐 King of Black"

## 영상이 끝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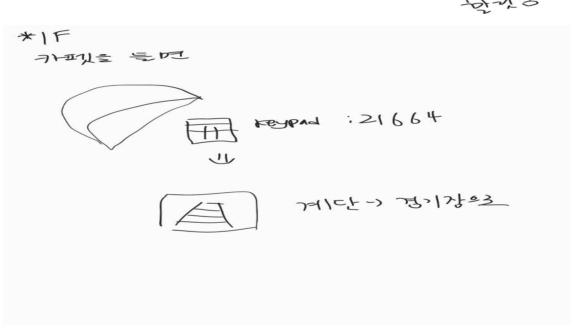
체스판 위에는 흑말과 백말이 있는데 백말은 다 채워져 있는 반면, 흑말 같은 경우 king을 비롯해 3개의 말이 비워져있다. 방안에는 지도가 있고(그래픽) 부족한 말들이 있는 장소를 표시하고 있고 커다란 체스 경기장이 어디있는지 표시되어있다. 부족한 말들을 찾아 체스판에 배치해야 함. (말을 찾으러 다니는 중 백말들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며 플레이어(KINg)과 가까이오면 CheckMate라는 경고를 하고 잡히면 gameover )흑말을 다 찾지 못한 채 커다란 체스경기장에 바로 가서 문을 클릭하면 "체스말이 부족해..이길 수 없어."라고 한다. 체스판은 interaction UI로 체스판 보기가 나오고 클릭하면 체스판에 말들을 둘 수 있도록 한다. (말이 3개뿐이라서 하나씩 왔다갔다하며 하는 것이 좋을지 가방 안에 챙겨서 두는 것이 좋을지 고민.(만약 가방 안에서 하는 거라면 bool을 이용해서 각각의 말을 찾아 클릭할 때마다 bool을 true로 두고 비활성화시킨 후, 체스판 보기UI가 떠서 클릭하면 체스판이 확대되어 또 다른 UI로 체스말 두기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걸 클릭하면 가방에 있던 말들이 나오도록 )) 말을 다두면 큰 체스 경기장의 문을 열 수 있음(키패드에 21664입력 이 비밀번호는 티비 밑에 제시

할 예정). 체스 경기장에 들어가면 흑말의 King을 제외하고 모든 말이 다 배치되어 있음. 흑 말의 KING자리에 플레이어가 서면 게임이 시작.





けるの22523. 7日号の13ggM 日本171号 日本171号 セスツ



생각보다 건물(?)만 넓어서 그렇지 구현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빨리 끝낼 수 있을 거 같아요.

체스 경기장에서 체스 게임을 못하는 건 진짜 체스 게임으로의 컨셉이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플레이어가 관ㄴ리인 C를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 식으로 게임을 마무리할 것 같아요(예를 들어 경기장 속 망치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흰색킹을 제외한 말들을 깨부수고 시작해서 말들을 움직여 킹을 죽이는 거.->킹만 있으면 어느 것을 움직이든 머리안쓰고 쉽게 죽일 수 있겠죠. )->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때 그때 넣도록 할게요 실제체스게임을 넣는게 아닌 이상 쉽게 구현될테니까요.